

韓國經濟와 學校經濟教育의 課題

李 在 雄*

〈目 次〉

- I. 序 論
- II. 經濟教育和 政策弘報
- III. 民主會社의 經濟教育
- IV. 未來志向의 學校經濟教育
- V. 學校經濟教育의 改善課題
- VI.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에서 經濟教育이 本格的으로 실시된지 6년여가 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경제교육은 국민을 대상으로 주로 短期的인 政策弘報 성격에 치우쳤다. 80년대에 들어서 경제교육이 강화되면서 직장 集合教育, TV, 신문 및 예비군, 반상회 등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경제교육이 확대추진되었다. 그래서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當面問題와 對應方向” 등을 풀이 또는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學習시키는 것 정도로 理解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면 그동안 정책당국이 경제교육을 추진하게 된 動機는 무엇인가?

한국경제는 70년대 후반이래 對内外로부터 經濟的 또는 經濟外的으로 많은 變化和 시련을 겪어왔다. 대내적으로는 과거 정부주도 성장정책의 추진에 따른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지원 등으로 경제의 能率이 크게 떨어졌고 構造的 不均衡이 심화되었다. 그 結果 인플레이션을 惡化시켜서 80年代 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副作用이 뚜렷하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제환경도 70年代 이후 악화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으로 세계경제는 심한 국제수지 不均衡에 빠졌다. 原油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은 인플레이션과 不景氣를 동시에 수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무역불균형과 이에 따르는 국제통화질서의 동요로 先進國은 保護貿易主義를 강화했다.

* 成均館大學校

韓國經濟는 이러한 對内外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의 質的改善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과거의 政府主導 경제정책에 대한 挫折과 反省은 政策轉換을 不可避하게 했다.¹⁾ 따라서 정책운용방식도 量的成長위주에서 物價安定에 바탕을 둔 능률향상으로 바뀌었다. 정부규제와 지원도 줄이고 民間의 창의와 경쟁에 바탕을 둔 市場經濟를 보다 活性化시켜야 했다.

그러나 物價安定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安定化施策에 대한 國民的合意가 필요하며 시장경제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지식수준(Economic Literacy)을 높여서 個人的合理的이며 調和있는 경제활동을 유도해야 한다.

이런 目的에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政府主導의 國民經濟教育弘報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初期에는 國民經濟教育弘報와 이를 專擔하던 「對國民經濟弘報企劃團」(1982년 현재의 경제기획원의 經濟教育企劃官室로 개편)의 명칭들이 내포했듯이 정부의 경제교육은 단기적 정책홍보에 치우쳤으며 根本적으로 國民의 경제지식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未洽했다.

당시에 정부는 “全國民的 經濟入化”라는 口號아래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제교육을 확대실시했다. 교육내용도 예컨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와 對應方向”, “함께 이겨내자 오늘의 경제난국”, “80年代를 向한 새 戰略” 등이었으며 이러한 홍보성 경제교육을 注入式으로 반복학습시켰다. 초기의 경제교육은 체제, 內容, 方法 등에 있어서 획일적, 경직적인 성격을 면치 못했으며 實績위주의 거의 強制性을 띠기도 했기 때문에 成果와 아울러서 批判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실시된 경제교육의 成果라면 역시 물가안정에 대한 國民의 共感帶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1982년에 한자리 물가상승률로 떨어지고 83년에 제자리 물가를 달성하면서 그후 물가가 安定勢를 유지해온 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安定化施策의 추진 등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제교육도 心理的인 면에서 物價安定에 기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와 아울러서 경제에 대한 國民의 關心도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國民은 경제에 대한 理解水準이 낮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批判能力도 거의 갖추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경제교육은 국민의 관심분야, 利害關係가 있는 분야에 대한 경제정보와 知識을 얻고 자신의 正當한 主張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이 스스로 參與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교육은 市場經濟의 유지발전에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의 경제교육은 정부주도로 정책홍보 내지는 그 自體가 보조적인 政策手段으로 인식됨으로써 경제교육의 質的改善과 均衡있는 目的追求 등의 課題를 남겼다.²⁾

1) 經濟企劃院, 「開發年代의 經濟政策」, 1982, pp.219~235.

2) 李在雄, 「國民經濟教育弘報의 實績評價와 長期方向」, 經濟企劃院, 1983.

本論文의 목적은 경제교육의 의의와 重要性을 밝히고 한국경제의 興件變化에 따르는 경제교육의 목적, 앞으로의 課題를 논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제교육에 대한 經濟學界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參與를 기대하며 또한 경제교육 자체에 대한 研究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학계는 지금까지 大學의 經濟學中心으로 제한된 경제학교육에 安住하거나 經濟現實을 분석하고 政策建議를 하는 등 현실참여에 기울어져서 民主會社와 市場經濟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경제교육에는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경제교육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表出되지 않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한 研究도 거의 없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커다란 취약점중의 하나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경제교육도 저절로 잘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교육의 量的, 質的改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經濟學界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參與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서 美國의 경제학계는 1950년대이후 경제교육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왔으며³⁾ 특히 美國經濟學會(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는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⁴⁾,⁵⁾

3) 미국의 경제교육에 대한 몇가지 대표적인 研究는 G.L. Bach & Phillip Saunders, "Economic Education :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5, pp.329~356. 을 들 수 있으며, John J. Siegfried & Rendigo Fels, "Research on Teaching College Economics :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eptember 1979, pp.923~969. 경제교육의 효과에 관해서는 R.E. Attiyeh, G.L. Bach & K.G. Lumsden, "The Efficiency of Programmed Learning in Teaching Economics : the Results of A Nationwide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9, pp.217~223. 경제교육의 생산함수를 분석한 Eric A. Hanushek,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in the Estimation of Educational Production Func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Summer 1979, pp.351~358. George Stigler, "The Case, if any, for Economic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1970, pp.77~84.

4) 美國經濟學會는 예컨대 1959년 교과서연구위원회를(Textbook Study Committee)를 구성해서 미국의 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제학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한 교과서를 선정해서 각급학교에 추천했다. AFA의 경제교육분과위원회는 1963년 "Economics in Schools"를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년에 發表했다.

1961년에는 경제교육 Task Force를 구성하고 「Economic Education in the Schools」을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각급학교에서 실시되는 경제교육의 실상을 조사분석한 보고서였다. 이 Task Force는 또한 고등학교의 경제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最少限의 경제원리의 理解를 설정해서 각급학교에 알렸다. 그밖에도 1961년 AEA는 미국경제교육협의회(JCEE)와 공동으로 "The American Economy"라는 TV프로그램을 제작해서 CBS TV방송망을 통해서 1962~64년간 방송해서 교사,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경제교육을 시켰다. 그밖에는 각급학교의 標準經濟理解度 Test(Test of Economic Understanding)를 작성해서 全國의 인테스트目的에 사용하도록 했다.

5) Burton A. Weisbrod, "Research on Economic Education : Is it asking the right question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y 1979, pp.14~21.

II. 經濟敎育과 政策弘報

경제敎育을 주관해온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제敎育의 目的을 첫째, 정부의 제반 경제정책에 대한 國民의 합의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국민 각계각층의 지나친 期待水準을 낮춰가며 셋째, 국민의 경제에 대한 理解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한다.⁶⁾

이들 세가지 목적은 어느 정도 서로 관련이 있지만 특히 첫째와 둘째 목적은 정책홍보의 특성을 강조한다. 정부가 정책내용을 국민에게 充分히 알림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게하며 이에 대한 지지와 合意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서 정책홍보는 정책추진을 위한 最善의 意志와 勞力을 公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敎育은 정부정책의 제도적인 制御장치(Built-in Control) 또는 評價手段의 역할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책홍보와 상이한 정책내용은 조만간 정부의 信賴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을 언제나 동시에 똑같이 만족시키는 어렵다. 때로는 특정계층이나 集團의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 특히 국민에게 정책목표를 충분히 알림으로써 合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경제敎育을 통한 정책홍보 효과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 기대수준을 적절하게 관리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所得政策(Incomes Policy)이다. 경제문제는 자연현상과는 달리 예상심리, 期待感 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젖어 있으면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어렵다. 또한 지나친 기대감은 失望과 挫折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經濟不安定을 가져오기 쉽다. 오늘날 企業, 勞組, 농민, 소비자단체 등은 각기 集團의 세력으로 조직화되고 댓가를 爭取할 힘도 커지면서 누구나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이 각기 그들의 몫보다 많은 것을 要求하면 사회전체로 이해가 상충된다. 기업은 製品가격을 더 받으려 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地主는 임대료를 각각 지나치게 받으려 하는 높은 期待와 慾求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產業平和와 경제질서를 不安하게 한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絶對貧困에서 벗어나고 所得이 向上되면서 국민의 기대와 욕구도 크게 늘어났다. 1970년대에 정부가 제시했던 “待望의 80年代” 등의 口號 역시 국민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주게 되었다. 여기에 정부홍보의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책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는 결국 국민의 기대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弘報와 慾求增大 사이에

6) 대한상공회의소, 「경제敎育은 왜 하는가」, 알기쉬운 경제시리즈 No.12, 1984, p.9.

갈등이 일어난다. 결국 80년대에 들어서자 정책당국은 과거의 성장전략이나 口號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경제안정화시책 및 소득정책으로서의 경제교육은 어느 정도 國民의 기대수준을 자제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86년 이후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한국경제는 더우기 油價下落, 國際金利下落 및 美달러貨下落의 소위 3低現象 등에 힘입어서 國際收支가 黑字로 돌아섰으며 높은 성장을 보이게 되자 근로자의 기대와 욕구도 커지게 되었다. 더구나 87년에 들어서 政治民主化에 대한 욕구 팽창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의 각 부문으로부터 그동안 억눌려 온 權利주장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되었다.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勞使紛糾가 거의 全産業에 걸쳐서 심각하게 일어난 것은 국민적 合意가 不足했던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경제교육의 홍보효과는 단기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가 우선 合意를 얻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목표와 효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며 個人의 利害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또한 個人으로서, 그리고 社會全體로서 當面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기본원리와 개념, 분석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들을 실제 경제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지식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先行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注入式 정책홍보는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意圖하는 效果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한국경제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경제의 각 부문에서 質的改善과 自律化를 요구하고 있다. 80년대 후반의 이같은 여건변화는 경제를 보다 能率的으로 向上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86년 이후 만성적인 國際收支 赤字가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 先進國 특히 미국으로부터 國內市場을 개방하고 수입自由化를 요구하는 壓力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대외적으로 경제自由化, 開放化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內外로부터 끊임없이 커다란 여건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서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定着시키고 國民生活의 質的向上과 경제자유화 開放化도 필연적으로 擴大해 나가야 할 과정이다.

경제가 對內的으로 自由化되고 對外的으로 開放이 확대되는 것은 바로 市場經濟로 接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自由化를 추진하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것은 곧 경제체제를 보다 個個人의 意思決定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個人의 合理的인 判斷能力,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個人의 경제지식수준의 向上에 의존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경제교육은 사람들의 경제지식수준을 높이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경제현상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원리의 이해가 不足한 가운데 特定目的을 위한 경제정보를 제공하고 의도된 方向으로 해석시키고자 하는 경제교육은 혼란을 일으키기 쉬우며 장기적으로 교육훈련 효과도 제한적이다.

앞으로의 경제교육은 단기적인 정책홍보 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제인식 수준을 높이는 方向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주도 보다 民間의 自發的인 參與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우리 社會가 2000年代에 先進社會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長期的이며 未來志向의 경제교육이 요청된다.

Ⅲ. 民主社會의 經濟教育

시카고大學의 프랭크·나이트(Frank H.Knight)교수는 일찌기 한 社會의 政治構造와 경제구조는 너무나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同一한 社會構造를 각기 다른 側面에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교육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自由市場經濟를 유지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民主主義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⁷⁾

民主主義를 이끌어가는 美國이 경제교육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경제의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부터이다. 그들은 거대한 資本主義 市場經濟를 더욱 확고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國民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民主市民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民主主義 정치제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듯이 경제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해서 市場經濟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이해함으로써 경제주체로서 소양을 기르는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의 모든 정부정책이 경제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民主市民으로서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個人的 관점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복잡하며 허다한 문제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경제에 대한 이해없이 는 결코 합리적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다.

7) James D. Calderwood, "What is Economic Education?" *Consumer Education and Economic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 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1981, 또한, Anthony F. Suglia, "The Role of Economic Education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System," 大韓商議주최 「경제교육세미나」에서 發表, 1987.5.7.

이렇게 볼때 우리도 民主主義를 신봉하고 民主化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國民이 市場經濟體制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동에 현혹되기 쉬우며 中央執權기구의 決斷을 선호하며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손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든다.⁸⁾ 국민의 대다수가 이러한 경향을 가질때 市場經濟와 民主主義는 모두 실패하기 쉬우며 急進과 격파가 權力을 集中하게 된다. 그와 반면에 시장경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個人의 경제생활을 보다 合理的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책임감있는 유능한 市民이 된다.

오늘날 세계에는 獨裁政治體制와 自由民主主義政治體制가 兩極을 이루고 있다. 독재정치 체제에서는 모든 權限과 힘이 독재자나 통치권자 또는 中央委員會에 의해서 독점된다. 모든 決定은 中央權力機構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個人은 基本權을 상실하고 정치체제에 소극적으로 이끌려갈 뿐이다.

이와 반대로 自由民主主義에서는 개인이 정치체제에 적극 참여한다. 個人은 代表機關을 통해서 스스로 意思決定權者가 된다. 독재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는 권력집중 정도와 주체에 따라서 여러가지 混合型 정치체도가 있다.

경제체제에도 이와 매우 平行한 체제가 존재한다. 한편에는 命令經濟(Command System) 또는 中央計劃經濟(Centrally Planned Economy)가 있다. 과거로부터 王, 독재자 또는 中央計劃委員會 등 中央權力者들이 모든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경제체제가 바로 이것이다.

어느 社會에서나 資源은 제한되어 있는데 欲望은 늘어남으로써 稀少性의 原理가 지배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 즉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며 누구에게 分配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느냐는 문제이다. 소련과 같은 명령경제에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中央權力기구가 決定한다.

이와 대조적인 경제체제로는 市場經濟가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을 個人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제도이다. 무엇을 생산하느냐는 문제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의해서 決定된다. 어떻게 생산하느냐는 문제는 市場에서 경쟁을 통해서 가장 능률적인 方法이 決定된다. 기업이 제한된 資源을 이용해서 가능한 限 가장 이익을 많이 내도록 생산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경쟁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간의 흥정으로 가격이 決定된다. 모든 가격은 이렇게 決定되며, 價格에 따라서 資源 및 상품이 分配된다.

8) JCEE, *Economic Education and the Community, Annual Report 1984~1985*, p.2.

이렇게 볼때 독재정치와 명령경제는 表裏의 관계가 있다. 정치와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한결같이 中央權力機構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또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⁹⁾ 이들은 모두 個人의 의사결정에 바탕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시장경제는 생산, 소비, 분배의 모든 면에서 個人의 選擇과 決定에 依存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發展은 개인의 수준 높은 의사결정능력에 달려다고 하겠다. 즉 한 나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수준이 낮으면 높은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선택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個人의 厚生을 높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 전체의 기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경제교육은 個人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思考하는가를 거들어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과 생각하는 方法을 가르치는 것은 크게 다르다.

경제교육은 근본적으로 注入式 교육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경제원리를 배우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Learning Process)이다. 그러나 注入式 교육은 어떤 문제에 대한 特定한 해결이나 理解를 갖도록 설득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명령경제에서는 注入式 교육과 정책홍보는 있으나 진정한 경제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의사결정이 中央當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個人의 판단이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재정치 체제에서는 명령경제 이외의 경제체제가 있을 수 없으며 市場經濟는 民主社會에서만 유지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명령경제와 시장경제를 區分하는 要因중에 하나는 眞正한 경제교육의 必要性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수 있겠다.

경제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合理的으로 생각하는 方法(Rational Way of Thinking)”을 길러주는 것이다.¹⁰⁾ 특정한 경제문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만, 훈련된 사고방식과 分析方法은 變하는 여러가지 경제문제에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變化에 對應하기 위해서도 경제교

9) 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自由에 바탕을 둔다. 또한 경제적 자유는 政治的 自由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Press, 1962.

10)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Literacy for Americans. A Program for Schools and for Citizens* 1962, p.28. 및 동 위원회의 보고서, *Economic Education in the Schools, A Report of the National Task Force on Economic Education*, 1961. 참조.

경제학은 경제문제에 대한 合理的인 사고방식이며 해답집은 아니라고 규정한다.

육은 注入式이 되어서는 않된다. 또한 경제교육은 개인, 기업, 정부로 하여금 각각 그들이 當面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줄 뿐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고 革新을 주도함으로써 能動的으로 발전하는 原動力을 줄 수 있다.

民主社會의 경제교육은 自由市民에게 자본주의 市場經濟의 장점과 우월성을 이해시키고 經濟의 自由, 選擇의 범위와 능력을 넓히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시장경제에는 市場失敗(Market Failure)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의 그릇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한 政府失敗(Government Failure)가 시장실패보다 훨씬 더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¹¹⁾ 경제교육은 정부의 역할보다 생산과 고용의 주체인 企業과 個人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民主社會의 一員으로서 시장경제의 法則을 잘 따르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理解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日常生活은 우리가 직접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경제문제에 直面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合理的인 행동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個人의 경제문제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權利나 정치적 힘, 選擇의 自由를 효과적으로 責任있게 행사할 수 없다. J.F.케네디는 “知識없는 自由는 空虛하며 自由없는 지식은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때 경제교육은 바로 시장경제와 民主主義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겠다. 경제에 대한 無知와 誤解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차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民主社會는 구성원들로 부터 맹목적인 愛國心, 忠誠心, 使命感 이상의 合理的인 판단과 責任感있는 行動을 요구한다.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自由는 그 국민의 지식과 능력을 啓發 活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보장되는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경제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IV. 未來志向의 學校經濟教育

경제교육의 本質은 경제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이론을 위한 이론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많은 경제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하거나

11) 이밖에도 Murray Wiedenbaum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個人의 탐욕이나 기업의 이윤동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비정한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로 자본주의 경제는 명령경제나 통제된 사회보다 국민들을 훨씬 더 잘 살도록 한다.”

Wisconsin State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Economics in Education*, Fall 1985, p.8.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알아야 한다. 또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을 活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분석도구를 습득하는 것이다.

어떤 경제용어나 사실만을 암기한다고 이것이 곧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一時的인 사실이란 순식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 단편적인 사실의 암기만으로는 새로운 경제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생길 수 없다.

또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성급하게 손쉬운 解答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一見해서 신속하고 명쾌해 보이는 해결책은 흔히 그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더 큰 문제들을 초래하는 수가 적지 않다. 예컨대 시장의 사소한 결함이 생길 때마다 政府介入 및 規制를 불러들이면 당장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지나친 정부규제라는 더 큰 희생이 따르고 시장기능은 마비 내지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어떠한 해결책도 항상 거기에 따르는 負擔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교육의 목적은 시장경제의 특성과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重點을 두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다른 경제체제에 비해서 우월한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개인은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集團의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기업, 은행, 정부 등에서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직과 기능이 무엇인가 등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교육은 個人이나 경제전체로나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注入式, 또는 이데올로기 위주의 경제교육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체제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교육은 또한 경제가 그 사회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움직이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대체로 어느 社會에서나 경제의 목표는 成長과 安定, 고용증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소득배분의 平等, 경제적 自由 등이다. 경제문제에 關心이 여기에 이르면 “選擇”과 “機會費用”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비록 경제목표는 쉽게 정의할 수 있더라도 個別的인 目的들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정책을 쓰면 失業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代身 무엇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理解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의 선택은 여러가지 목적들을 잘 조화

시키며 또 얻은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서 사회전체로 플러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계층을 主要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理想的으로 말하자면 교육은 全國民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경제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도 중요하지만 長期的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學校를 통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다. 특히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며 또 이들을 가르치는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들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은 논리적인 이유에서 중요하며 그 自體가 매우 經濟的이다.

우선, 모든 사람이 다 大學에 가서 경제학을 充分히 공부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직장이나 그밖에 여러 곳에서 실시되는 경제교육에 參與할 수도 없다. 그러나 누구나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는 다니기 때문에 건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開發할 수만 있다면 未來의 市民이 될 학생들을 모두 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다.

또한 직장이나 社會에서 실시되는 경제교육은 非體系的, 단편적이며 교육을 담당하는 특정부분의 利害關係를 포함한다. 이에 비해서 학교경제교육은 체계적이며 중립적인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經濟的 思考方式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일반적으로 좀더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타고난 知的 호기심을 가지며 이들에게는 편견도 적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습관도 자리잡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잘못된 先入觀이나 固定觀念을 제거해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국가의 교육기관, 즉 학교, 大學교육기구 등을 통해서 경제교육의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움을 받기가 용이하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결함이 있는 원인중의 하나도 교육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자원도 다른 모든 자원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광범위한 전체에게 非體系的으로 분산시키는 것보다 학교에 集中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하겠다. 현실적으로도 제한된 교육자원으로 短期에 모든 國民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合理的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계속해 나가면 결국 長期的으로 모든 국민에게 경제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학교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기에 가장 理想的인 곳이며 또한 초중고등학교 시절은 경제교육을 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미국의 經濟教育協議會(JCEE)는 경제교육의 重點을 學生을 대상으로 하는 學校教育과 이들을 가르칠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강화에 집중하고 있다.¹²⁾

학교경제교육을 質的으로 개선하고 양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경제교육이 必要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교사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없다. 불행하게도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경제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거나 공부를 했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배우지 못했다.¹³⁾

교사들의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몇가지 接近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여러가지 形態의 워크숍이나 경제교육센터(Economic Education Center), 교육개발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 일선교사들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開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경제학의 개념을 정리하고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흥미있는 方法을 제시하여 일선교사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소개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여러 사범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에 경제교육을 충분히 포함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사들이 현직 근무를 시작하게 될 때에는 경제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교사로서 出發하게 된다.

교사들에게 경제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질을 높이는 것은 교육자원을 가장 효과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교사를 잘 교육시킴으로써 그가 수백,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소위 乘數효과(Multiplier Effect)가 크게 때문이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을 학생과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JCEE는 1949년 설립된 非政治的, 非營利의 독립적인 경제교육지원기구로서 학교경제교육의 量的擴大와 質的向上을 그 주요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학교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JCEE *Annual Report 1985~86* 參照.

13) 1986년 大韓商議와 韓國放送公社가 共同으로 조사한 학교경제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과를 가르치는 一線 교사들의 경제학자질이 不足하다. 대학수준의 경제학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못한 사회과 교사의 수는 국민학교교사의 6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회과교사의 각각 33%와 27%를 차지했다. 大韓商議, 한국방송공사 共同調査 「학교경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1986.12, 參照.

14) Anthony F. Suglia, *Economic Education in Korea : Developing a Systematic National Program*, 대한상의, 1986.4.

이와 아울러서 학교경제교육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면 여타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Curriculum)의 조정을 통한 교육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경제교육의 量的擴大와 質的向上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실제로 학교교육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數 많은 敎科目이나 교육프로그램은 個別的으로는 모두 나름대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한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중요성,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 및 機會費用에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그 범위와 비중이 決定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효과에도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지나치게 많은 교육자원을 특정 교육, 특정 과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單位當 교육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 예컨대 각급 학교에서 國民論理 등을 특정 목적에 따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보다 경제교육의 시간비중을 높여서 시장경제의 원리로 학생들을 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民主主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이념교육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에서와 같은 社會科계통의 과목중에도 地理 國史 등이 경제보다 5 배 이상의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그 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限界效果均等의 法則에 따라서 각 교과목간의 교육과정에서 시간비중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 교과목의 비중에 터무니 없는 過不足이 생기는 것은 낭비와 비능률이 다.

마찬가지로 경제교육도 단기정책홍보나 소득정책으로서의 목적 등 특정 목적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國民의 경제지식수준의 向上 등 균형있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경제지식수준을 체계있게 높이기 위한 학교경제교육의 강화가 요청된다.

끝으로 우리는 政治現實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특정계층에게 유리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치여건이 변하면 경제교육의 목적, 방향 및 필요성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교육 특히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民主化가 추진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V. 學校經濟教育의 改善課題

효과적인 학교경제교육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경제교육과정의 구성 역시 4가지 要素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교육과정(Curriculum)

의 개발, 교과서 및 교육자료의 개발, 연구와 評價 등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改善課題를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⁵⁾

- ① 학교경제교육의 목적 설정 및 教育內容의 檢討
- ② 이에 따르는 教育過程 및 교과서, 교육자료의 改編 및 開發
- ③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경제의 比重調整
- ④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再教育프로그램 개발 및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의 경제 교육개선
- ⑤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研究開發體制의 확립
- ⑥ 교육효과와 評價와 경제교육의 각 단계별 추진사항의 조정 및 개선 등의 制度化
- ⑦ 학교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 위한 支援制度의 確立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入試爲主, 過密學級, 교육자료 부족 등 우리의 교육여건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교과서 改編과 교사의 연수 및 각급학교에서 경제교육의 時間比重 확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떠한 경제지식을 학교수업에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언제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급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의 경제부문의 改編作業은 이 중에서 어떻게 경제지식을 학교수업에 도입하느냐는 초보적인 接近에 불과하다.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교과서의 개편方向은 경제의 기본성격 및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시키도록 하며 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기본방향만으로는 과거 및 현행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고 별로 특징이 돋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사항으로는 과거와 달리 政府의 政策弘報를 지양하고 注入式, 暗記式 내용기술도 고치기로 했다. 가능하면 實生活의 事例를 많이 소개함으로써 응용능력을 높이도록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自然스럽게 드러나도록 內容을 구성하고 기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지식을 얼마나 가르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는 최소한도로 각급 학교에서 어떠한 경제학 내용들을 가르쳐서 未來의 경제주체들을 훈련시켜야 하는가 이다.

15) 학교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大韓商議, 民間經濟教育協議會, 「學校經濟教育의 改善方案研究」, 1986.12. 參照.

이것은 주어진 어떤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이다. 近來에 大學의 경제원론 뿐 아니라 각급학교의 사회과 교과서 중의 경제분야의 내용도 구색을 갖추어서 모든 것을 백과사전식으로 망라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교과서에 잡다한 경제用語, 개념, 원리 등을 무차별하게 平面的으로 나열함으로써 논리적인 理解보다 注入式 용어암기등에 그치며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학생에게 훈련시킬 수 없게 되어있다.¹⁶⁾ 따라서 중요한 기본원리를 선별적으로 充分히 설명하는 것이 수많은 용어, 개념의 암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실상 경제학 또는 경제적 분석 방법은 그 적용범위가 近來에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리, 분석방법 등을 철저히 습득함으로써 이것을 실생활에 活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는 각급학교를 막론하고 모두 백과사전식 平面的 내용 구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는 학교수업 중에 경제분야가 차지하는 時間比重의 문제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전체 수업기간 중에서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내외에 그친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같이 낮은 시간비중이 적절한 것인지는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실제로 경제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하나의 獨立된 教科目이 아니다.¹⁷⁾ 社會科 중에 한 分野로서 政治, 法, 社會, 文化, 人類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비슷한 성격(넓은 의미의 社會科)의 과목으로서 國史, 國民論理, 地理, 世界史 등은 독립과목으로서 中·高等學校에서 社會科보다도 더 많은 시간비중을 누리고 있다(<表 1>, <表 2> 參照).

특히 중학교에서 경제의 시간비중은 전체수업시간의 0.6%로서 지극히 낮은 반면 國

16)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Horace Taylor, "The Teaching of Undergraduate Economics :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Undergraduate Teaching of Economics and Training of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50.

경제원론의 내용은 1년동안에 학생들이 이해하거나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George J. Stigler, "Elementary Economic Edu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3, pp.653~59.

대학경제원론의 내용이 잡다한 개념, 용어의 백과사전식 나열에 그쳐서 학생들에게 암기이상의 경제적 사고방식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몇몇개의 용어, 도표, 정책방안 등을 암기하지만 일단 졸업하고 나면 마치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과서에서도 공연히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구색을 갖추어 차려놓아 잡화상과 같은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aul Heyne,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Science Research Associates, Inc. Chicago, 1976.

머릿말에서 Noel McInnis 의 논문 "Teaching more with Less"를 인용해서 경제학교수들은 가르칠 경제원리, 개념 등을 엄격하게 制限해서 보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7) 獨立教科目の 數는 국민학교에서 9個, 中學校 10개, 高等學校가 19個에 達한다.

史, 도덕은 독립과목으로서 社會의 一部分인 경제에 비하면 그 비중이 각각 10배나 높다.

고등학교에서는 人文社會系列의 경우 전체수업시간의 1.1%인데 비해서 國民論理는 2.9%, 地理 (I, II)가 4.3%, 歷史(國史와 世界史)가 4.9%를 차지하고 있다. 自然系列의 경우 경제분야의 시간비중(0.6%)은 他科目에 비해서 더욱 낮다.

〈表 1〉 國民學校 經濟比較(1.04%)

科目 %	道 德	國 語	社會 ¹⁾	算 數	自 然	體 育	音 樂	美 術	實 科	其 他	計
時 間	2	6	4	5	4	4	2	2	2	2~	32
比 重	6.3%	18.8%	12.5%	15.6%	12.5%	9.4%	6.3%	6.3%	6.3%	6.3%~	100%

註：1) 社會科目은 地理, 歷史, 一般社會(政治, 法, 經濟, 社會文化)로 構成

2) 經濟分野比重은 社會科의 1 / 12

—中學校 經濟比較(0.6%)

	道 德	國 語	國 史	社會 ¹⁾	數 學	科 學	體 育
時 間	2	4.5	2	2.5	3.5	3.5	3
比 重	5.7%	12.9%	5.7%	7.1%	10%	10%	8.6%

科目 %	音 樂	美 術	漢 文	英 語	實業· 家 庭	其 他	計
時 間	2	2	1.5	4	3	2.5	35
比 重	5.7%	5.7%	4.3%	11.4%	8.6%	7.1%	100%

註：1) 社會科目은 地理·世界史, 一般社會(政治, 法, 經濟, 社會文化)로 構成

2) 經濟分野比重은 社會科의 1 / 12

資料：韓國教育開發院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학교경제교육은 質的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量的으로도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너무 不足한 실정이다.

〈表 2〉 高等學校 經濟比重(人文·社會：1.1%, 自然：0.6%)

科目 %		國民倫理	國 語	國 史	社會 ²⁾	地理· 世界史	數 學	物 理
人文· 社會 系列	單位	6	31	6	9	13	17	2.5
	比重	2.9%	14.8%	2.9%	4.3%	6.3%	8.2%	1.2%
自然 系列	單位	6	24	6	5	7	26	6.5
	比重	2.9%	11.3%	2.9%	2.4%	3.3%	12.4%	3.1%
科目 %		化 學	生 物	地 學	體 育	教 鍊	音 樂	美 術
人文· 社會 系列	單位	2.5	2.5	2.5	16	12	5	5
	比重	1.2%	1.2%	1.2%	7.7%	5.8%	2.4%	2.4%
自然 系列	單位	6.5	6.5	6.5	16	12	5	5
	比重	3.1%	3.1%	3.1%	7.6%	5.7%	2.4%	2.4%
科目 %		漢 文	英 語	第 2 外國語	商業· 家 庭	其 他	特別活動	計
人文· 社會 系列	單位	11	22	11	18	4	12	208
	比重	5.3%	10.5%	5.3%	8.7%	1.9%	5.8%	100%
自然 系列	單位	5	22	11	18	4	12	210
	比重	2.4%	10.5%	5.2%	8.6%	1.9%	5.7%	100%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분야의 시간비중을 늘어야하며¹⁸⁾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는 경제를 하나의 독립과목으로 分離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경제를 독립과목, 필수과목으로 분리시켜서 가르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경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타 과목의 비중이 조정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과목간의 시간비중은 時代에 따라서 사회적·교육적 價値와 目的의 변화 및 과목간의 상대적인 중요성 여하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과목 시간비중조정에 따르는 가장 심각한 制約要因은 産業構造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一時的이나 教師人力需給의 不均衡 및 關連분야의 利害相衝 등이다. 가령 경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경제를 가르친 교사에 대한 수요가急增하는 반면에 시간비중이 줄어든 他科目의 교사들에 대한 수요는 준다. 경제교사의 不

18) 한국교육개발원, 「經濟科目의 時間比重 및 入試問題 擴大方案」1987. 參照.

足도 문제이지만 他科目의 교사과잉상태(失業)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과목간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문제는 실제로 과목간 비중조정의 핵심문제이다. 이것의 해결없이는 科目간의 原則없는 領土戰爭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¹⁹⁾

과연 교육과정에서 교과목간의 時間比重을 결정하는 科學的인 基準이 있는가 또한 현재의 경제분야의 比重은 적절한가는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보야 할 과제이다.

그러면 교과목간의 시간비중에 있어서 이와 같이 심한 不均衡이 생기게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경제는 왜 독립과목이 못하고 1%에 그치는 最少限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는가?

원래 경제분야는 1950년대 및 그 이전에는 비교적 비중이 커서 약 2%을 차지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후 계속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축소되었다. 그동안 교육과정이 변할때마다 국민윤리(도덕·반공 등), 國史, 世界史, 地理 등이 國家的 요청에 따라 政策科目으로 分離 獨立되었거나 關聯학계의 지속적, 조직적인 영토확장 노력에 따라서 비중을 늘려왔다.

이에 비해서 경제분야는 學界의 無關心속에 失地를 계속해 왔다. 경제학자들은 大學에 安住하거나 現實參與 등에 몰두하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에는 전혀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치·경제 등이 학교교육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원인중의 하나는 60년대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체제, 70년대의 유신체제 등이 강화되면서 국민의 選擇의 自由는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러한 制約이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교육은 기본적으로 個人的 선택의 자유

19) 一部 교육전문가들은 그동안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히 교과와 편제와 시간배당에서는 너무나 많은 싸움이 있어왔다. 그것은 한 시간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專功者들간의 영토싸움과 어떤 특수목적을 학교교육으로 부과하려는 힘있는 者들의 입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김재복, “공동필수 교과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세미나」, 1987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 p.60.

또한 박병호, “교과편제의 적절성 및 교과목 통합요구 분석”, p.74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전문가나 교사 등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 영역에 대한 배타적 애착심을 버리고 좀 더 순수한 자세로 교과 통합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의 개정에 관한 限, 교과에 대한 충성(욕심)은 학습자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할때 첫째, 교육자들은 마음을 비우고 학생이 학교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같은 치열한 경쟁 또는 무엇인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같은 치열한 경쟁 또는 영토전쟁이 일어나는 현실에 경제학자들이 無關心하면 경제교육은 退化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등 민감한 문제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경제교육의 문제점, 현행 교과서에 대한 批判 등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지적되어 왔다.²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내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제교육은 不實했고 지난 30년동안 계속 축소되어온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학교경제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再認識함으로써 失地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현상유지를 고수하려는 他教科目과의 利害對立으로 인해서 경제분야의 비중확대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²¹⁾

또한 경제교육의 교사양성과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現職 및 事前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직교사에게는 보수교육이 그리고 장래의 교사들이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에 다닐때 적절한 경제교육과정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외국에서는 經濟教育學科를 開設해서 경제교육담당 교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현직교사 또는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생에게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하려면 단순히 經濟學科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을 더 많이 들도록 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제학자와 교육학자가 共同으로 마련하는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포함한 경제교육학 강좌인 것이다.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적당한 교재 및 다양한 교육보조자료도 개발해야 한다. 경제원론 등과 같은 대부분의 大學教材는 이런 목적에 적당하지 못하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교육적으로 有用하게 잘 연구개발된 학습교재, 시청각교재, 기타 교수보조자료가 필요하다.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지원할 경제교육기구 및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경제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자료가 생산되고 또 교사들을 위한 학습교재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경제학을 교사 및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방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경제교육을 담당한 교사, 경제학자, 교육학자 등으로 경제교육학회를 구성하는 것이

20) 李在雄, “現行 學校經濟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학교경제교육의 개선을 위한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1986.10.8.

21) 이러한 사례는 美國에서도 나타났다.

Co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Literacy for Americans*, p.22, footnote.

바람직하다. 이들은 경제교육의 研究開發, 이론적 발전, 교육현장의 문제 등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계, 교육계, 企業 및 相關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교육연합회가 학교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支援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企業이나 勞動組合, 농민단체들도 궁극적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됨으로 경제교육에 적극적으로 支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업은 앞으로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속에서 쉽게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이다. 勞使問題, 기업의 이미지,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등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데 경제교육이 도움이 된다면 기업 스스로 경제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利害關係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研究開發과 함께 교육효과의 평가가 뒷받침해야 된다. 결국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경제의 기본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또 이것을 실제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효과의 評價는 교육방법, 내용, 제도 등을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基本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경제교육의 質的改善과 量的擴大를 위한 이같은 여러 가지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 과거 경제교육의 문제점 중의 상당부분은 경제학자의 參與 없는 경제교육이었기 때문이었다.

VI. 結 論

우리나라에서 경제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초기의 경제교육은 國民經濟教育으로서 정부주도로 실시되었던 만큼 그 목적이나 동기가 다분히 短期政策弘報 내지는 所得政策 및 경제정책의 補完手段으로의 성격이 컸다. 우선 추진동기에서 부터 과거의 정부주도 경제정책으로 누적된 부작용과 對内外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르는 어려움과 좌절을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정책전환과 함께 경제교육의 必要性이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된 초기의 경제교육은 量的 성과위주에 치우치는 등 문제점도 많았으나 점차 질적개선도 어느 정도 뒤따랐다. 이런 가운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은 국민의 기대수준의 자제, 인플레이션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변화와 도전에 直面하고 있다. 정치民主化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도 自由化, 開放化 등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民主社會와 市場經濟의 추구는 새로운 의미에서 개선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경제인식수준을 높여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體系的이며 未來志向의 학교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時點에 와있다.²²⁾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合理的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키울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安定되고 발전할 것이다. 반면에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좌절에 빠지거나 무책임하고 과격한 선동에 휩쓸리기 쉽다. 문제의 해결을 단기적 급진적인 방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를 改善하기 보다 오히려 不安定하게 할 위험이 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및 광범위한 選擇의 自由의 擴大는 個人的 合理的인 의사결정 능력에 달렸다. 이것은 교육에 의해서 훈련되고 향상되는 것이며 좌절과 과격한 행동은 自由를 擴大하기 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試行錯誤를 가져오기 쉽다.

끝으로 우리의 未來를 간단히 생각해 보자. 앞으로 경제교육이 직면하게 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통적인 경제구조, 경제질서, 가치관 등과 새롭게 대두되는 價値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目標은 물질적인 면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에도 未來에도 변함없이 人間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GNP나 1人當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지표로는 算出될 수 없는 새로운 價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生活水準에 대해서 논의할 때 分配의 衡平, 균등한 고용기회, 보다 나은 作業 환경, 소비자의 厚生, 여가를 즐길 권리, 주택공급, 쾌적한 환경보호, 편리한 교통, 통신수단의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不幸한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생각하게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및 정부가 상호 대립보다 조화속에서 共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지나치게 利己主義에 빠져서 약탈적으로 되고 倫理的으로 타락하거나 秩序意識이 결여될 때 시장경제와 民主主義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경제교육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우리의 念願인 民主化를 후퇴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의 발전이야말로 정치적, 경제적 自由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경제교육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교육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많다. 우선 경제학자, 교육학자, 교육자들은 우리의 경제체제와

22) 李在雄, “경제교육”, 『未來志向의 人間教育』, 서울特別市教育委員會, 1986. p.244~258.

民主化의 장기적인 성공여부는 앞으로의 경제교육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參與 그리고 研究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학교경제교육이 質적으로 落後되어 있으며 경제가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時間比重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축소된 주요원인도 그동안 경제학계가 이 분야에 너무 無關心했기 때문이다.

本 論文은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변화와 현황, 과제 등을 나름대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경제학계에 학교경제교육의 重要性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계에서는 1950년대이후 학교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高潮되었으며 이 분야에 參與와 研究도 많다.²³⁾ 또한 경제교육개선을 위하여 경제학자들이 매우 큰 役割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경제교육개선에 기여해야 할 때이다.

23) G.L. Bach and Phillip Saunders, "Economic Education :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5.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前掲書, p.11. 또한 美國經濟學會(AEA)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갖고 있으며 경제교육연합회(JCEE)와 공동으로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을 발간해서 경제교육연구, 경제이론, 교육방법, 효과분석등 研究開發에 기여하고 있다.